

전남산림연구원, 산림병해충 예찰 온힘

110개소 고정조사구 설치…소나무재선충병 등 15종 대상

전라남도산림연구원이 기후변화로 빨라지는 산림병해충 우화 시기를 맞아 산림병해충 예찰 및 진단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돌발 해충은 물론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등의 활동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병해충 발생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산림병해충 예찰(예비 관찰조사)은 발생 우려가 있거나 발생 지역에 대해 발생 여부, 발생 정도, 피해 상황 등을 관찰 조사하는 것이다.

효율적 예찰 추진을 위해 대상지와 우선순위, 횡수, 시기 등을 별도의 기준을 정해 현장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험준한 산림지역은 드론을 이용한 항공예찰도 함께 한다. 산림병해충을 조기에 발견, 정확하게 진단해 적기 방제가 이뤄지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

레, 참나무시들음병 등 주요 산림병해충과 빛나무 빗자루병, 미국흰불나방, 양버즘나무 흰가루병, 이팝나무 녹병 등 15종에 대해 22개 시군 110개소에 고정조사구를 설치해 발생 시기와 규모 등 발생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유아들에 의한 산림해충과 명승지, 국립공원 등 주요 산림지역 10개소에 대한 돌발 병해충에 대해서도 오는 9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 분야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선 매개충 우화상황 조사는 물론 피해 정도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페로몬 유인트랩 방제 시험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 가로수 배롱나무 등에 피해를 주는 뿔시혹나방과 황철나무 잎마름병 등 신규 병해충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높은 방제 약제 선발을 위해 농약직관등록시험도 함께 추진한다.

/김 호 기자

광산구, 지역 국가유산 활용사업 추진

월봉서원·무양서원 등 5개 사업 23개 체험 행사 마련

광산구가 국가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국가유산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해 지속적으로 활용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광산구는 월봉서원, 무양서원, 김봉호 가옥, 신창동 유적 등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월봉서원에서는 고봉 선생의 철학 ‘달의 정원 월봉(月峯)서원’을 주제로 △선비의 하루 △교마철학자 상상학교 △살롱 드 월봉 △자경야담 △월봉 로맨스 △다시 카페 등을 진행한다.

무양서원은 ‘무양 in the city(무양인 더 시티)’를 구호로 △여의제

형 ‘사전약방문’ △무양 청년선비 △무양 백세별곡 △무양 다누리 사랑방 등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용아생가와 김봉호 가옥에서는 ‘광산, 가족의 녹색생활’을 주제로 기후대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봉호 가옥은 유·초등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농가주택에서 즐기는 제철음식 체험 ‘농가의 사계’를 운영한다.

신창동 마한 유적지에서는 △직조, 목공 공방, 활쏘기, 불피우기 체험 △접구를 사용한 탈곡체험 △신창동 손기술 공방 등 다양하게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과일시, 참여 방법은 월봉서원 누리집 또는 광산구 관광육성과(062-960-8255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 따라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이동기 기자

전남자경위, 청소년 마약 예방 협약

전남함께한걸음센터와 중독예방 등 공동 대응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남함께한걸음센터와 청소년 마약 예방 등 지역사회 마약류 예방을 위해 지난 14일 업무협약을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최근 전국적으로 청소년 마약류 범죄 증가추세에 따라 전남지역 청소년의 마약류 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해 마약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2024년 2기 출범과 함께 찾아가는 청소년 마약 예방 현장교육과 현장에서 마약 물질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안전용품(G-check) 800여 개를 구입해 지급하는 등 도박·마약 등 청소년 중독범죄 예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 2024년 순천에 개소한 식약청 산하 국가기

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남함께한걸음센터와 ▲아동, 청소년 마약류 중독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협력 ▲학교, 기업, 지역사회 대상 마약류 인식개선을 위한 협력 ▲마약 중독자 치료 및 예방정책 수립에 관한 공동 연구 개발 협력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손수경 센터장은 “마약류 및 약물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독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남이 마약 없는 청정구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병현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장은 “늘어나는 청소년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해 전남함께한걸음센터와 업무협약을 해 기쁘다”며 “두 기관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호 기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전남경찰에 항의서한

“수사 진척 더디…깊은 실망과 우려”

경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경찰의 수사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전남경찰청을 방문해 공식 항의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5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경찰청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단순한 항공 사고가 아닌, 대

한민국 항공안전 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낸 중대한 사건”이라며 “참사 이후 경찰 수사 과정을 믿고 기다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나 위법 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유가족은 점점 깊은 실망과 우려를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전남경찰 측에 수

사 진행 경과와 확보한 조사자료 서면 보고 제출, 수사 결과에 따른 법·행정적 조치 계획 회신, 유가족 대상 정기 면담 및 수사 경과 브리핑 체계 수립, 수사자료 중 가능한 범위 내 정보 공개 및 유가족 질의권 보장 등도 요청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무안공항,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실 3개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사고 당시 관제 음성 파일과 활주로 폐쇄회로(CCTV) 영상, 로컬라이저 건설 도면 등 총 1000여점을 압수해 조사 중이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와 임직원, 국토부 및 공항공사 관계자 등 5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탁형 ‘로컬라이저’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 증명을 위한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경찰은 “블랙박스 분석과 엔진 분해 조사 등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호 기자

법원 “광주시, 김삼묵 D센터 사장 해임 과도” 징계 취소 판결

김삼묵 전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광주시의 해임 징계 처분이 지나치다며 낸 행정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김 전 사장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는 2023년 6월 김 전 사장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정기감사를 통해 김 전 사장이 회의실·스튜디오 무상임대, 지인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가 있다며 해임을 요구했다.

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임기가 남아있던 김 전 사장에 대해 해임 의결을 했다.

재판부는 우선 스튜디오를 두 달간 무상 제공한 점, 직장 내 괴롭힘 등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다개하고자 장기 임대를 추진한 것으로 보이나 특혜를 줬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 용역계약 체결에 영향력 행사 또는 지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산관리규정을 준수하지 못했으나 비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일으킨 발언도 내용과 횡수에 비춰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 바로 해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임은 지나치다고 봤다.

순천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순천소방서는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확산과 경각심 고취를 통해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잠금장치에 의한 비상구 폐쇄 ▲비상구 물건 적치 ▲방화문 도어스트로퍼 설치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 등이다.

신고를 원할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진·동영상 자료나 기타 증빙 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최기정 순천소방서장은 “비상구나 방화문 등 평소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신고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현·조순의 기자



광주농민회 “나락 저가구매 광주RPC 규탄” 광주 농민들이 광주통합미국종합처리장(광주통합RPC)을 향해 나락값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농민회는 15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통합RPC앞에서 농민회 영농발대식을 열고 “광주RPC는 매년 광주에서 수확된 조곡 40kg가격을 타 지역보다 2000~3000원씩 낮게 구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시스

광주소방본부, 기상재난 분석 재난대응전략 짚다

기상특보 따른 소방활동 분석…광산구 기상재난 영향 가장 커 장마기간 호우 소방활동 집중 전체 67%…5·11월 강풍 대응

광주소방안전본부가 기상특보유형별, 행정구역별, 시간대별 기상재난을 분석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전략을 새롭게 수립한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광주지방기상청과 협업해 2024년 발효된 기상특보에 따른 119 신고·접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 211건의 소방활동을 펼쳤다.

이는 행정 구역, 기상특보 유형, 시간대별 기상·기후 데이터와 소방활동 정보를 융합해 보다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분석 결과, 전체 기상특보 관련 소방활동 211건 중 광산구가 88건(4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북구 65건(31%), 서구 29건(14%), 남구 19건(9%), 동구 10건(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산구는 지리적으로 남서해안과 인접해 호우나 대설 등 기상재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특보 유형별로는 호우 115건, 대설 70건, 강풍 2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장마 기간(6월22일~7월27일) 동안 강수량의 73.9%(392.8mm)가 집

중되면서, 이 기간 호우로 인한 소방활동이 전체의 67%(77건)를 차지했다. 출동 시간대는 오전 9~10시(36건)와 오후 3~4시(27건)가 많았다.

대설특보는 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총 70건의 출동이 있었다. 강풍특보는 5월과 11월에 각각 발생해 총 26건 대응했다. 해당 시기에는 집중적인 재난 대응이 요구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나훤원 광주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은 “기상특보별 소방활동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재난대응 전략을 정비하고, 기상정보 기반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북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마케팅 지원

북구는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상인회가 각 상점가 특색을 반영한 마케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홍보와 소비 진작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총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골목형 상점가 약 25개소를 대상으로 한 곳당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23일까지 사업 마케팅 참여 상인회 모집을 진행,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5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진도 윤림산방 배롱나무 ‘올해의 나무’ 선정

수형·조화의 미 호평…산림청, 보호수로 지정

전남도는 진도 윤림산방(의신면 윤림산방로 315)의 배롱나무가 산림청의 ‘2025 올해의 나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2025 올해의 나무 선정은 보호수가 가진 운치와 멋, 형태 등 생태·경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람과 상생의 역사 등 인문학적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보전·관리가 필요한 노거수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국에서 소나무, 곱술, 왕버들 등 8종 10그루(보호수 5·노거수 5)가 최종 선정됐다. 전남에선 노거수 부문에서 진도 배롱나무가 선정됐다.

윤림산방은 조선시대 남화의 대가였던 소치 허련 선생이 말년에 거처하며 여생을 보냈던 화실이다.

연못과 정원이 어우러진 진도의 대표 명승지로, 연못 인공섬에 있는 약 95년 된 배롱나무는 여름 내내 꽃을 피우고 사계절 아름다운 자태를

유지하며 윤림산방의 자연풍경을 완성하고 있다. 산림청은 배롱나무에 대해 아름다운 수형과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 우리 전통 정원에서 중시하는 ‘조화의 미(美)’를 잘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선정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될 예정이며, 환경개선 및 홍보를 위한 녹색자금이 200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이 배정 예정이다.

/조순의 기자

